

치위생과 학생들의 인성과 생활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현주¹ · 황세현² · 이지영^{3*}

¹동주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²동주대학교 치위생과 강사, ³동주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Effe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Personalities and Life Stresses on Their Adjustment to College Life

Hyun-Ju Lim¹, Se-Hyun Hwang², Ji-Young Lee^{3*}

¹Dept. of Dental Hygiene, Dongju college, Associate professor

²Dept. of Dental Hygiene, Dongju college, Lecturer

³Dept. of Dental Hygiene, Dongju college, Adjunct professor

Objectives: This study identified personality and life stress factors that influence dental hygiene students' college life adaptation.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0-30, 2021, targeting 182 dental hygiene students at two schools in Busan. The data were analyzed via a one-way ANOVA, Scheffe test, and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were determined to influence college life adjustment were personality ($\beta=0.574$, $p<0.001$), life stress ($\beta=-0.149$, $p<0.05$), and department selection motivation ($\beta=0.379$, $p<0.05$).

Conclusion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ampled program to increase personality and multi-faceted efforts to improve college life adaptation.

Keywords Adjustment, College life, Dental hygiene students, Life stress, Personality

Received on May 07, 2022. Revised on May 21, 2022. Accepted on May 24, 2022.

*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ji1021@nate.com)

I. 서론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수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책임감을 지닌 사회인이 되길 기정과 사회로부터 기대 받게 되고 수동적인 생활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대학생활 적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1].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성숙과 대학생활 적응은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학생활 과정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은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과제이다[2].

또한 대학생들은 사회진출을 위한 진로를 결정해야 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과업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3]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의 양상이 달라진다[4]. 특히 치위생과는 다양한 임상실습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국가고시에 대한 부담감과 과중한 학습량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대학생활의 성공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의 적응은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5].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대학생활에서 자신의 욕구와 대학생활 환경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6]. 변화하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누구에게나 적응은 중요하지만 성숙된 성인으로 가기위한 준비기인 대학생활의 성공적인 적응은 미래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해 중요하다[7]. 이러한 사회의 환경적인 변화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인성적 자질을 요구한다[8].

최근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올바른 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업체 현장에서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대학졸업생의 올바른 인성을 요구하고 있다[9].

인성이란 각 개인이 가지는 태도, 사고, 행동특성을 의미하며 인격, 성품, 기질, 본성, 인간성 등의 용어와 유의어로 사용되고

있다[10]. 이는 마음의 뉘뉘이와 마음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개인의 기질을 의미하는 마음바탕은 교육으로 변화되기 어려우나, 마음의 뉘뉘이는 올바른 품성과 인격으로 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11].

이에 따라 대학생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서 인성발달에 필요한 소양과 가치, 공동체의식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 등한시 되고 있고[12],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도와 취업 후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치위생과 학생들은 졸업 후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있는 의료 분야에서 임상기술을 갖춘 전문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다양한 유형의 환자들을 만나 상황에 맞는 문제 해결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치위생과 학생들은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환자들의 갈등을 올바른 인성으로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치위생과 학생들의 인성, 스트레스 대학생활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성수준 및 인성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와[13] 간호계 열이나[14] 보건계열[15]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행하여졌으나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인성을 키워나가며,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성 및 학교생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소재한 2개 대학의 치위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10일 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조사하였다. 학교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표본 수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검정력 $1-\beta=0.8$ 의 조건하에서 효과크기 0.25로 ANOVA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의 수는 총 159명이 요구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18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 한 6부를 제외하여 최종 18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년, 학과를 선택한 동기, 주관적 전공만족도, 주관적 대인관계, 지도교수 상담 횟수로 구성된 총 5문항을 조사하였다.

2) 인성

인성 수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교육개발원(2014)의 KEDI 인성 검사지를 김[16]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성검사지는 총 53문항으로 10개의 인성 덕목(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의미한다. 본 도구를 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신뢰도 Cronbach's α 는 .976로 나타났다.

3)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과 김 등[17]이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0문항으로 하위요인은 경제문제, 이성과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장래문제, 가치관 문제, 학업문제, 친구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의미한다. 본 도구를 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9로 나타났다.

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과 박[1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하위요인은 대인관계, 학업활동, 진로준비, 개인심리, 사회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의미한다. 본 도구를 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1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및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26.0 ver for windows, IBM SPSS Statistics)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이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성, 생활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에 대해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생활 스트레스, 대학 생활적응의 분석은 One-Way ANOVA로 사용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학년은 ‘1학년’이 31.9%, ‘2학년’ 33.5%, ‘3학년’ 34.6%로 나타났고, 학과를 선택한 동기로는 ‘취업률이 높아서’ 51.6%, ‘점수에 맞춰서’ 9.9%, ‘가족 및 주변에서 추천 권유’ 18.7%,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16.0%, ‘기타’ 3.8%로 나타났고, 주관적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 41.20%, ‘보통이다’ 55.0%, ‘불만족한다’ 3.8%로 나타났다. 주관적 대인관계에서는 ‘좋다’ 55.5%, ‘보통이다’ 41.8%, ‘나쁘다’ 2.7%로 나타났고, 지도교수 상담횟수에서는 ‘1회’ 57.7%, ‘2회’ 22.5%, ‘3회 이상’ 19.8%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인성, 생활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정도

연구대상자의 인성, 생활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정도의 평균점수는 <Table 2>와 같다. 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00±0.45점이었으며, 생활 스트레스에서는 4점 만점에 평균 1.60±0.33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36±0.56점으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생활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정도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성, 생활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정도 차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인성에서 학년($p<0.05$), 주관적 전공만족도($p<0.001$), 지도교수 상담횟수($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생활 스트레스에서는 주관

적 전공만족도($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학년($p<0.05$), 학과 선택 동기($p<0.05$), 주관적 전공만족도($p<0.001$), 지도교수 상담횟수($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성, 생활 스트레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3학년), 학과 선택 동기(적성), 주관적 전공만족도(만족), 지도교수 상담횟수(3회이상)를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전환하고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8.3%(Adj.R²=0.483)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82

Characteristics	N	%
Grade	1st	58 31.9
	2nd	61 33.5
	3rd	63 34.6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94 51.6
	according to grades	18 9.9
	recommend	34 18.7
	aptitude	29 16.0
Major satisfaction	other	7 3.8
	satisfied	75 41.2
	moderate	100 55.0
	dissatisfied	7 3.8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01 55.5
	moderate	76 41.8
	Bad	5 2.7
Consultations with professors	1	105 57.7
	2	41 22.5
	>3	36 19.8
Total		100

<Table 2> Score for Personality, Lif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182

Variables	M±SD	Min~Max
Personality	4.00±0.45	2.94~5.00
Life stress	1.60±0.33	1.00~2.82
Adjustment college life	3.36±0.56	1.47~5.00

<Table 3>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Personality and Life stress, Adjustment to college life

N=182

Characteristics	N	Personality			Life stress			Adjustment college life			
		M±SD	F	p	M±SD	F	p	M±SD	F	p	
Grade	1st	58	3.97±0.66 ^{ab}	3.483	.033*	1.64±0.54	2.383	.095	3.24±0.70 ^a	7.904	.001*
	2nd	61	3.88±0.55 ^a			1.66±0.44			3.17±0.70 ^a		
	3rd	63	4.16±0.56 ^b			1.50±0.38			3.65±0.79 ^b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94	3.95±0.62	1.355	.251	1.59±0.46	2.403	.052	3.40±0.75	3.676	.007*
	according grades	18	3.93±0.70			1.83±0.44			3.10±0.73		
	recommend	34	4.00±0.53			1.61±0.46			3.11±0.59		
	aptitude	29	4.23±0.60			1.57±0.47			3.75±0.89		
	other	7	4.04±0.22			1.23±0.15			3.21±0.33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75	4.26±0.53 ^b	13.870	<0.001**	1.42±0.36 ^a	12.129	<0.001**	3.65±0.76	10.002	<0.001**
	moderate	100	3.85±0.57 ^{ab}			1.71±0.46 ^{ab}			3.16±0.68		
	dissatisfied	7	3.53±0.73 ^a			1.99±0.64 ^b			3.17±0.90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01	4.06±0.58	2.162	.118	1.58±0.42	0.736	.481	3.39±0.74	1.187	.307
	moderate	76	3.96±0.63			1.61±0.50			3.35±0.79		
	Bad	5	3.54±0.16			1.84±0.51			2.86±0.03		
Consultations with professors	1	105	3.89±0.59	4.464	.013*	1.67±0.50	2.676	.072	3.25±0.72 ^a	.574	.030*
	2	41	4.13±0.56			1.54±0.38			3.40±0.67 ^{ab}		
	3<	36	4.18±0.62			1.48±0.37			3.64±0.90 ^b		

Analysed by one-way ANOVA, ^{a,b} Scheffe post-hoc, M±SD: Mean ± Standrd Deviation
 *p<0.05, **p<0.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0.813	0.464		1.753	.081
Personality	0.725	0.085	0.574	8.560	<0.001**
Life stress	-0.247	0.110	-0.149	-2.255	.025*
Application motivation (Aptitude)	0.253	0.112	0.122	2.250	.026*

N=182, R²=.491, Adj.R²=.483, F-value=57.298, p=.000, Durbin-Watson=1.899

Analysed by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p<0.05, **p<0.001

(F=57.298, p<0.001).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인성(β=0.574, p<0.001)와 생활스트레스(β=-0.149, p<0.05), 학과선택동기(β=0.379,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독립변수 중 인성 수준이 높고, 생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적성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한 경우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인성과 생활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치위생과 학생의 인성수준은 5점 만점에 4.00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는 평균 3.76점, 미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16]에서는 평균 3.5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많은 대학에서 인성관련 교양수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인성 수준이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로 인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치위생과 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정도를 측정된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1.60점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와 유사한 간호 대학생으로 한 생활 스트레스 정도는 1.57점, 임 등[20]의 연구에서도 1.67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6점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한 임과 김[19]의 연구에서 3.30점, 치위생(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이[21]연구에서는 3.2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보건계열 대학생으로 한 전과 노[15]의 연구에서도 평균 3.33점, 간호학생으로 연구한 정과 임[22]의 연구에서도 3.25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에서 학년($p<0.05$), 전공만족도($p<0.001$), 지도교수 상담횟수($p<0.05$)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보건계열 대학생으로 한 연구 [15]에서도 종교, 학과 선택동기, 전공만족도, 상담자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치위생(학)에서 인성이란 치과위생사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품성으로 좋은 이미지의 치과위생사라고 할 수 있으며, 치위생(학)과를 선택하여도 치과위생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춘 학생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23] 인성에 대한 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신입생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인성은 교육과 환경에 의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전공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지도교수님들과의 잦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하여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학생활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에서는 전공만족도($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2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치과(병)의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학점관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치위생과 교육과정은 대체적으로 과중한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업문제와 관련된 생활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학년

($p<0.05$), 학과 선택동기($p<0.05$), 전공만족도($p<0.001$), 지도교수 상담횟수($p<0.05$)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1,2,3학년 중에서 졸업예정자인 3학년이 가장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나 학제의 차이는 있지만 임과 김[19]의 연구에서 졸업예정자인 4학년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3학년 때 취업에 대한 진로가 결정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함에 있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반면 2학년이 대학생활 적응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2학년부터 많은 치위생 전공교과목 수업에 대한 실습수업 그리고 임상현장실습 등이 처음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전공교과목 수업 및 실습수업, 임상현장 실습 등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다양한 교내와 교외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과 학과 선택동기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전과 노[15]의 연구와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21]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전공을 선택할 때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남으로 고등학교 과정부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 등을 고민하고 학과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맞춤형 진로지도, 멘토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담횟수가 많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과 김[1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대학생활에 어려움이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횟수가 많아질수록 지도교수와의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으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상담이나 만남을 통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성($\beta=0.574, p<0.001$)와 생활스트레스($\beta=-0.149, p<0.05$), 학과선택동기($\beta=0.379,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보건계열 대학생,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15, 19, 23]에서도 인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결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른 인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정규교육과정이나 교과 외 교육 등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행동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습관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정과 입[22]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나타났다.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20]에서 극복력 정도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 정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구결과에 따라 치위생과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완화 시키거나 극복 및 대처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과 선택 동기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 계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강[24]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선택 시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기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진로탐색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대학 입시 기간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 취미 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지역 2개 대학의 치위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인성과 생활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1. 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00 ± 0.45 점이었으며, 생활 스트레스에서는 4점 만점에 평균 1.60 ± 0.33 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36 ± 0.56 점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에서는 학년($p < 0.05$), 주관적 전공만족도($p < 0.001$), 지도교수 상담횟수($p <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생활 스트레스에서는 주관적 전공만족도($p < 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에서

는 학년($p < 0.05$), 학과 선택 동기($p < 0.05$), 주관적 전공만족도($p < 0.001$), 지도교수 상담횟수($p <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인성($\beta = 0.574, p < 0.001$)와 생활스트레스($\beta = 0.149, p < 0.05$), 학과 선택동기($\beta = 0.379, p < 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위생과 학생들의 인성 수준이 높고 생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적성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한 경우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나 교과 외 교육 등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행동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인성관련 프로그램과 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완화 시키고 극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학 입시기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 취미 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 및 진로 선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Lee SJ, Yu JH: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2(3):589-607, 2008.
2. Jeon MK, Kim MS: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 differentiation, self esteem, life stress in nursing department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4):293-302, 2013.
DOI: 10.14400/JDPM.2013.11.4.293
3. Lee HS: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task and adjustment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Docto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14.
4. Richard S. Lazarus and Susan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5. Cho IY: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2937-2945, 2014.
DOI: 10.5762/KAIS.2014.15.5.2937
6. Choi HJ, Lee EJ: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2):261-268, 2012.
DOI: 10.7739/jkafn.2012.19.2.261
7. Shin SH: Effect of part-time employment experience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6):1033-1041, 2015.
DOI: 10.13065/jksdh.2015.15.06.1033
8. Jeong HS, Lee KL: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5):2635-2647, 2012.
9. Yang SS, Kim HI, Joo KP: A study of companies' perception on university education and their needs.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9(2):145-170, 2006.
10. Hyun J, Choi SG, Cha SH, Lyu DY, Lee HK: Research analysis on the condition of school's character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R*. 2009.
11. Sim SS, Bang M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634-642, 2016.
DOI: 10.5762/KAIS.2016.17.12.634
12. Park SW: Humanities, liberal arts education, redefining the relationship for the poetics of character education. *Congress forum Academic seminar*, 2015.
13. Lee SH, Yoon CH: Effect of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experiential leaning activities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63(4):539-570, 2015.
DOI: 10.25152/ser.2015.63.4.539
14. Lee MR, Nam MH: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6):509-517, 2014.
DOI: 10.14400/JDC.2014.12.6.509
15. Jun MJ, No EK: The convergence study effected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ealth-related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4):433-442, 2018.
DOI: 10.15207/JKCS.2018.9.4.433
16. Kim HL: A study on differences in adaptation to school life depending on personality in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15.
17. Chon KK, Kim KH, Yi JS: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2):316-335, 2000.
18. Jeong EI, Park Y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1(2):69-92, 2009.
DOI: 10.17927/tkjems.2009.21.2.69
19. Lim JR, Kim SY: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and stress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0):301-308, 2019.
DOI: 10.15207/JKCS.2019.10.10.301
20. Lim HJ, Hwang SH, Lee JY: Relationship between the Life Stress,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9(4):18-24, 2021.
DOI: 10.33615/jkohs.2021.9.4.18
21. Lee JY: 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9(3):43-50, 2021.
DOI: 10.33615/jkohs.2021.9.3.43
22. Jeong IJ, Lim SM: Factors influenc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4):64-73, 2021.
DOI: 10.22156/CS4SMB.2021.11.04.064
23. Cheon HW, Yu MS, Jun MJ: The converged influence of character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dental hygiene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49-57, 2018.
DOI: 10.22156/CS4SMB.2018.8.6.049
24. Lee JY, Kang YJ: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freshmen majoring in health science.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Freshmen Majoring in Health Science*, 8(4):16-24, 2020.
DOI: 10.33615/jkohs.2020.8.4.16